

중국음악과 한국음악의 리듬

全仁平
중앙대 교수

요약

우리 나라에서는 리듬을 장단이라고도 한다. 장단(長短)은 그 말이 뜻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 길고 짧은 음이 모인 부가 리듬형이다. 이것은 서양음악의 분할리듬과 대조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음악의 리듬은 길고 짧은 음이 모여 장단을 이룬다. 그래서 3박은 2+1, 5박은 3+2, 8박은 5+3, 10박은 6+4, 16박은 11+5의 장단이다. 중국음악의 리듬은 대개 1자1음식(syllabic)이다. 그리고 4언1구 5언절귀 7언절귀 등 시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4박으로 부른다. 그래서 한국음악은 중국음악에 비하여 리듬이 복잡하다. 이것은 우리 말이 중국어보다 리듬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I. 머리말

노래란 말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이 달라지면 음악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우리 나라 말은 말의 앞부분을 강하게 발음한다. 그래서 음악은 강박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서양음악은 관사나 부정관사로 시작을 하고 전치사가 있어서 음악의 시작이 약박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서양 노래를 번역하여 우리 말로 노래하기는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오페라 춘희 중에 나오는 '축배의 노래'가 있다. 이것은 약박으로 시작하는 이태리 노래를 강박으로 시작하는 우리 말을 붙인 대표적인 실패 사례 중의 하나이다. 서양음악과 우리 말 관계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3/8 마/시--- /자마시/자마시/자
약/강약약/강약약/강약약/강

이와 같이 말은 민족마다 다르고, 말이 달라지면 음악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 글은 중국음악과 한국음악의 리듬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우리 말과 중국어의 리듬을 비교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 음악과 중국 음악의 리듬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글쓴이는 음악학자로서 말의 리듬을 자세히 알 수 없고, 더구나 중국어의 리듬을 살피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대단히 피상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음악과 말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꼭 말아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음악학과 언어학의 공동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의 꼬투리를 푸는 의미로 이 글을 썼다.

이 글은 우선 중국 노래를 살펴보고 그 시형과 리듬을 살필 것이다. 다음에는 한국음악의 리듬을 살필 것이다. 한국음악에는 리듬을 장단이라고 한다. 우선 장단의 의미를

살피고 장단 구조를 분석해 볼 것이다.

그리고 한시와 이것을 한글로 번역한 시의 리듬을 살필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시가 음악으로 표현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필 것이다. 이러한 비교는 두 나라 시와 음악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 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두 나라 음악의 리듬이 어떻게 다른 지를 알 수 있다.

II. 리듬의 종류

음악의 리듬을 분류하면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강박이 규칙적으로 나타나서 시간이 균등한 주기로 분할되는 리듬(isometric rhythm), 둘째는 강박이 불규칙하게 나타나서 일정한 주기를 형성하지 못하는 리듬(multimetric rhythm), 셋째는 박자의 길이부터 일정하지 않고 자유스러워서 박자를 갖지 않는 자유리듬(free rhythm)이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연주하는 대부분의 음악, 특히 서양음악은 고전음악에서 유행가에 이르기 까지 등시가의 박자로 되어 있다. 이러한 박자 리듬의 첫번째 특색은, 하나의 박자를 하나의 수치로 나눌 수 있는 분할 리듬(divisive)이라는 것이다. 즉 4/4박자는 2분음표 2개 4분음표 4개 8분음표 8개로 분할 되고, 6/8박자는 3/8박자의 2개, 9/8은 3/8박자의 3개로 나뉜다¹⁾.

이와 같은 분할 리듬과 달리, 여러 요소를 덧붙여서 새로운 박자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부가 리듬(additive) 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부가리듬의 전형적인 모양은 남인도음악(carnatic)음악에서 볼 수 있다²⁾.

III. 중국 음악의 리듬

중국 한시(漢詩)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조하는 부분은 운(韻)이 오는 자리이다. 그래서 한시를 노래로 표현할 때는 운이 붙는 끝 부분을 강조하여 길게 하는 때가 많다. 그리고 노랫말 한 글자를 한 박자로 삼고 4박자의 음악이 많다.

근래의 음악은 서양음악의 영향으로 변화가 많은 것이 있는데, 중국 원래의 음악은 1자1음식이었다.

1. 아악의 리듬

일찍이 우리 나라는 중국과 문화를 교류를 하면서, 중국의 아악을 받아들였다. 이 아악이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고려 예종 11년(1116년)이다. 악보로 보이는 가장 오랜 것은 『세종실록』(世宗實錄) 권 137에 있는 『원조임우대성악보』(元朝林宇大成樂譜)이다³⁾. 이 음악의 노랫말은 4언 4구로 되어 있고 음악은 4박자의 음악이 된다. 그 이유는 한 글자를 한 박자로 삼기 때문이다.

1) 黃秉冀, 『깊은밤, 그 가야금 소리』, (서울 : 도서출판 풀빛, 1994), 245-247쪽)

2) 전인평 한만영 공저, 『동양음악』, (서울 : 삼호출판사, 1989), 274-277쪽.

3) 『世宗實錄』 권 137. 『세종장헌대왕실록』(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2), 64쪽.

2. 관저(關雎)의 리듬

중국의 고대 시형은 3언과 4언이 많았고, 그 후에 5언과 7언절구(七言絶句)로 발전하였다.

『시경』(詩經)에 있는 306편의 시는 모두 4언시이다. 이것을 노래로 부르면, 다음과 같이 한 글자가 한 음씩이고, 4음이 한 단위가 된다. 4)

3. 양관삼첩(陽關三疊)의 리듬

양관삼첩은 7언절구(七言絶句)의 음악이다. 그래서 노랫말 7자가 한 구가 되는데, 이 중에서 앞의 6자는 한 박자씩 마지막 한 글자는 긴 음으로 노래한다.⁵⁾

IV. 한국 음악의 리듬

우리 나라에서는 리듬을 흔히 장단(長短)이라고 부른다. 장단이란 엄밀히 말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⁶⁾ 그러나 이 글에서 사용하는 장단이란 좁은 의미의 것이다. 즉, '일정한 주기를 반복하는 리듬형'을 장단으로 정의하고 논의를 전개하겠다.

장단이란 말은 길고 짧은 음(長短)이란 뜻이 있다. 우리 나라 장단은 대부분이 길고 짧은 음이 모여서 장단을 이룬다. 이것은 서양음악과 매우 다른 점이다. 서양음악의 리듬은 같은 길이의 리듬이 모인 것이 많다. 즉, 4/4는 2+2이고, 6/8은 3+3이고, 간혹 12/8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3+3+3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비하여 한국 음악의 장단은 길고 짧은 음이 덧붙여져서 장단을 이룬다. 우리나라 음악의 리듬은 길고 짧은 음이 모여 장단을 이룬다. 그래서 3박은 2+1, 5박은 3+2, 8박은 5+3, 10박은 6+4, 16박은 11+5의 장단이다.

그래서 서양음악은 '분할리듬'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장단과 같은 것은 '부가리듬' 구조라 한다. 다음에는 한국 음악의 장단이 어떻게 부가되어 장단을 이루는지 자세히 살펴보겠다.

1. 제1부가형

제 1부가형은 두 가지 박이 모인 것을 말하는데, 한국음악에는 3박과 2박이 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시조의 5박 장단이 여기에 속한다.

시조의 5박 장단은 시조 장단 점수에 3점(點)5박과 5점8박이 두 가지가 있다. 즉, 3점을 쳐서 한 장단 5박을 이루는 것도 있고, 5점을 쳐서 8박을 이루는 두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3점 5박이 바로 3+2의 구조로 되어 있다.

1 2 3 4 5
雙 搖 鼓

이와 흡사한 장단으로 가사(歌詞) 중 상사별곡(相思別曲)과 처사가(處士歌) 장단이 5박

4) 張師勳, 『최신국악총론』(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85) 25쪽.

5) 張師勳, 『最新國樂叢論』(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85) 27쪽.

6) 李惠求, "장단의 개념", 『한국음악연구』 제19집(서울 : 한국국악학회, 1991) 29쪽.

이다. 이것은 시조 5박 장단과 흡사하다.

2. 제 2부가형

제 2부가형은 세 가지 박이 모인 것을 말한다. 이것은 3+2+3이 기본이 되어, 이것이 다시 여럿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3+2+3 외에 (3+2+3)*2, (3+2+3)*5, (3+2+3)*6, (3+2+3)*8 가 있다.

3+2+3 형에는 시조의 8박이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조는 5박과 8박의 두 가지 박자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8박이 3+2+3으로 되어 있다.

1	2	3	4	5	6	7	8
雙	搖	鼓		鼓	鞭	鼓	

(3+2+3)*2형은 3+2+3이 두 번 겹쳐진 것으로 8*2의 16박 장단이다. 현행음악의 가곡과 악보 『시용향악보』의 서경별곡(西京別曲)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곡 16박 장단은 다음과 같다⁷⁾.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雙	鞭	鼓		鞭	鞭	鼓		鞭	雙		鞭	鼓			

제 3부가형은 4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이것은 3+2+3+2형, 3+2+2+3형, 2+3+3+2형의 네 가지가 있다.

3+2+3+2형에는 엇모리 진쇠장단 시늬장단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음에 엇모리 장단의 구성을 살펴보겠다.⁸⁾

1	2	3	4	5	6	7	8	9	10
雙	鞭	鼓		鼓		鞭	鼓		

4. 제 4부가형

제 4부가형은 8가지 요소로 구성한 것을 제 4부가형으로 분류하였다. 이것은 3+2+3+2+2+3+3+2 형, 3+3+2+2+3+3+3+3 형의 3가지를, 이 범주에 넣었다.

3+2+3+2+2+3+3+2 형은 부산시 아미동 농악대가 지신밟기를 할 때, 행진음악으로 치는 길군악은 3분박과 2분박이 섞인 혼분박 8박, 3+2+3+2+2+3+3+2 박으로 친다. 그러나 김한순(金漢淳, 1934년생 상쇠가 치는 아미농악 판굿에서는 이것을 빨리 몰아 3분박 4박으로 몰아치고 있다⁹⁾).

7) 張師勛, 『최신국악총론』,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85, 1986 재판, 427쪽.

8) 全仁平, “산조장단의 형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자연과학 논문집』, (서울 : 중앙대학교, 1986), 425쪽.

9) 李輔亨, “傳統音樂의 拍 分拍의 變化에 대한 考察 -外來音樂의 影響에 따른 變化現象

5. 제 5부가형

제 5부가형은 앞에서 다룬 이외의 것으로 이 범주에 넣었다. 대단히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농악의 길군악7채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다.

3+2+3+2+3+3+3+2+3+2+2+3+3+2 형은 농악에서 길군악7채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강원도 충청도에 널리 퍼져있는 쇠가락이다. 이 쇠가락은 징이 7점 들어 가는 행진곡이라는 뜻으로 길군악7채라 한다.¹⁰⁾ 이 쇠가락은 3분박과 2분박이 3+2+3+2+3+3+3+2+3+2+2+3+3+2 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혼분박자이다. 다음에 악보와 구음을 보인다.¹¹⁾

V. 중국 음악과 한국 음악의 리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음악은 대개 1자1음식(syllabic)이다. 그리고 4언1구 5언절귀 7언절귀 등 대부분의 시를 4박으로 부른다. 이것은 대개 중국어가 4 글자가 한 단락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음악은 중국음악에 비하여 리듬이 복잡하다. 이것은 우리 말이 중국어보다 리듬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그 보기를 들겠다¹²⁾.

少年易老 學難成

4/4 ♩ ♩ ♩ ♩ ♩ ♩ ♩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나니

12/8 ♩ ♩ ♩. ♩ ♩ ♩. ♩. ♩ ♩ ♩. ♩ ♩ ♩ ♩ ♩ ♩ ♩.

그러므로 이 시를 중국식으로 부르면 단순한 리듬의 노래가 되고, 우리 나라 시조는 복잡한 리듬의 음악이 될 수밖에 없다.

VI. 맺음말

이 글은 중국 음악과 우리 나라 음악이 어떻게 다른가를 규명하기 위한 글이다. 각 민족마다 독자적인 말을 쓰는데, 말이 다르면, 곧 음악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성악곡은 말의 리듬과 강세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중국 음악과 한국 음악의 리듬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시형의 리듬과 음악의 리듬도 살폈다.

음악의 리듬을 분류하면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강박이 규칙적으로 나타나서 시간이 균등한 주기로 분할되는 리듬(isometric rhythm), 둘째는 강박이 불규칙하게 나타나서 일정한 주기를 형성하지 못하는 리듬(multimetric rhythm), 셋째는 박자

-, 출판사, 출판년도 미상, 13쪽.

10) 李輔亨, "농악에서 채에 대한 음악적 고찰", 『한국민속학』 (서울 : 한국민속학연구회, 1971).

11) 李輔亨, "傳統音樂의 拍 分拍의 變化에 대한 考察 - 外來音樂의 影響에 따른 變化現象 -", 출판사 출판년도 미상, 8쪽.

12) 全仁平, 『국악감상』 (서울 : 중앙대학교 출판부, 1983), 153쪽.

체의 길이부터 일정하지 않고 자유스러워서 박자를 갖지 않는 자유리듬(*free rhythm*)이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연주하는 대부분의 음악, 특히 서양음악은 고전음악에서 유행가에 이르기 까지 등시가 박자로 되어 있다. 이러한 박자 리듬의 첫번째 특색은, 하나의 박자를 하나의 수치로 나눌 수 있는 분할 리듬(*divisive*)이라는 것이다. 즉 4/4박자는 2분음표 2개 4분음표 4개 8분음표 8개로 분할 되고, 6/8박자는 3/8박자의 2개, 9/8은 3/8박자의 3개로 나뉜다.

중국 한시(漢詩)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조하는 부분은 운(韻)이 오는 자리이다. 그래서 한시를 노래로 표현할 때는 운이 붙는 끝 부분을 강조하여 길게 하는 때가 많다. 그리고 노랫말 한 글자를 한 박자로 삼고 4박자의 음악이 많다. 근래의 음악은 서양음악의 영향으로 변화가 많은 것이 있는데, 중국 원래의 음악은 1자1음식이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리듬을 장단이라고도 한다. 중국이나 일본에는 장단이라는 의미의 말이 없다. 우리 나라의 장단(長短)은 그 말이 뜻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 길고 짧은 음이 모인 부가 리듬형이다. 이것은 서양음악의 분할리듬과 대조되는 것이다. 서양음악의 리듬은 같은 길이의 리듬이 모인 것이 많다. 즉, 4/4는 2+2이고, 6/8은 3+3이고, 간혹 12/8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3+3+3+3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비하여 한국 음악의 장단은 길고 짧은 음이 덧붙여져서 장단을 이룬다. 우리 나라 음악의 리듬은 길고 짧은 음이 모여 장단을 이룬다. 그래서 3박은 2+1, 5박은 3+2, 8박은 5+3, 10박은 6+4, 16박은 11+5의 장단이다.

중국음악의 리듬은 대개 1자1음식(*syllabic*)이다. 그리고 4언1구 5언절귀 7언절귀 등 시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4박으로 부른다.

그새서 한국음악은 중국음악에 비하여 리듬이 복잡하다. 이것은 우리 말이 중국어보다 리듬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를 노래로 만들 때는 시의 리듬과 강세를 잘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世宗實錄』 권 137. 『세종장헌대왕실록』,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2.
- 李輔亨, “傳統音樂의 拍 分拍의 變化에 대한 考察 -外來音樂의 影響에 따른 變化現象 -”, 출판사, 출판 년대 미상.
- 李惠求, “장단의 개념”, 『한국음악연구』 제19집, 서울 : 한국국악학회, 1991.
- 張師勛, 『최신국악총론』,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85.
- 全仁平 韓萬榮 공저, 『동양음악』, 서울 : 삼호출판사, 1989.
- 全仁平, “산조장단의 형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자연과학 논문집』, 서울; 중앙대학교, 1986.
- 全仁平, 『국악감상』, 서울 : 중앙대학교 출판부, 1983.
- 崔鐘敏, “동해안 巫歌의 청보장단”, 張師勛博士回甲記念 『東洋音樂論叢』, 서울 : 한국국악학회, 1977.
- 최난경, “동해안 巫歌 중 세존곡의 제마수 長短考”,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黃秉冀, 『깊은 밤, 그 가야금 소리』, 서울 : 도서출판 풀빛, 1994.